

한국어 의미학 15, 2004.

조사 ‘을’의 의미에 대하여*

이 홍 식

(숙명여자대학교)

<Abstract>

Yi, Hong-Shik. 2004. *On the Meaning of the Particle ‘eul’*. *Korean Semantics*, 15.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meaning of the particle ‘eul’. They say that the particle ‘eul’ is a accusative case marker. But ‘eul’ cannot be a case marker, because it can occur at phrases without accusative case, and accusative case can be allotted to nouns without ‘eul’. It can also occur at several adjunctive phrases. This means that it cannot be a case marker. The meaning of ‘eul’ is to represent the patienthood. The particle ‘eul’ has other meanings which are related to the patienthood. They are completeness and patienthood given from the speaker’s viewpoint. ‘eul’ cannot occur with particles ‘neun, do’ because they have same properties; they belong to the speaker-oriented category.

핵심어: 조사, ‘을’, 목적격, 목적어, 화자, 대상, 전체성

1. 머리말

조사 ‘을’은 격과 관련된 특징과 함께 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특징도 함께 보여 준다. 기존의 논의는 ‘을’이 나타나는 모든 구성을 대격과 관련해서 기술하고자 하는 논의와 ‘을’이 나타나는 모든 구성을 특수조사로서의 용법으

* 이 논문은 2003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로 기술하려는 논의, 그리고 이 양자를 모두 ‘을’의 용법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두 번째 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의미를 하나로 환원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다의적인 처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세 번째 논의와 유사하다.

첫 번째 논의는 구조적인 형상과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토대로 ‘을’이 나타나는 모든 구성을 어떻게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내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다.¹⁾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격’ 배당은 단일한 원리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원리에 의해 다양한 구성에 나타나는 ‘을’을 기술하기는 하지만 이를 ‘격’이라는 단일한 개념 속에 넣음으로써 ‘을’이라고 하는 음성형식의 동질성과 그 기능을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 역시 ‘을’이라고 하는 문법 요소를 단일하게 기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논의와 같다.²⁾ 그러나 ‘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격’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장치를 통해 이질적인 구성에 나타나는 ‘을’의 기능을 포착하는 시도에 비해 더 어려운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미를 설정하고 ‘을’이 나타나는 구성에서 보이는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의미 기술 자체가 분명하게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미에서 표면적인 의미를 기술하는 과정의 타당성을 증명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 되기 쉽다.

세 번째는 ‘을’이 단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³⁾ 물론 세 번째 논의에서도 ‘격’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용법의 ‘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어려운 것처럼 다양한 용법의 ‘을’이 하나의 형태소 또는 하나의 문법 요소

1) 대부분의 생성문법적인 논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격 표지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신현숙(1982), 김재욱(2003) 등이 이에 속한다.

2) 수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우용(1994), 목정수(1998), 고석주(1999) 등이 있다. 양정석(2003)은 ‘을’이 격 표지라는 점을 부정하고 ‘을’의 의미기능을 기술하지만 ‘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3) 임홍빈(1972, 1987), 이광호(1988), 임홍빈 외(1995) 등에서 이러한 논의를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어 사전은 ‘을’을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어 기술한다.

라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해명되지 않으면 표면적인 용법의 차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 번째 논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법 요소의 상당수가 다의적이라고 하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유독 ‘을’만이 단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을’의 단일한 기능은 다양한 용법의 기술을 통한 귀납의 가능성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어떤 선험적인 전제로 작용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세 번째 논의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다양한 용법을 매개하는 장치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⁴⁾

본고는 ‘격’을 배제하고 ‘을’의 의미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논의에 포함되지만 ‘을’의 의미를 단일한 의미로 기술하지 않고 다의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세 번째 논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격’과 관련해서 ‘을’의 기능을 다룬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격’이 한국어 조사의 기술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논의도 적지는 않다. 그것은 ‘격’을 통해 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을 기술하려고 하면 할수록 ‘격’ 배당이 단일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절차를 하나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들 논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것에서 논의의 출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현상의 특성을 기술해 냈고 기존 논의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주장과 기술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서로 상반되는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들 논의들을 절충해 낼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분포의 문제이다. 격조사로서의 ‘을’이나 보조사로서의 ‘을’은 보조사 ‘은, 도’ 등과 같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분포의 공통점을 기술할 수 있다면 다의적인 처리도 가능할 것이다.

2. ‘을’과 관련된 문제

2.1. 격

격에 대한 논의는 대개 ‘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⁵⁾ 그것은 목적격 또는 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표지로 ‘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정석(2002)에서처럼 목적격에 대한 논의에서 ‘을’을 배제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목적격 논의는 ‘을’을 표지로 인정하므로 ‘격’은 ‘을’ 논의에서 빠질 수 없을 듯하다.

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격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을’과 관련해서 격을 논의할 때는 격 전반에 대한 문제와 격과 ‘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격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격 일반론이 아니라 격이라고 하는 범주를 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를 좁혀 생각해 볼 수 있다.⁶⁾ 범언어적으로 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보다는 인구어 중심의 격 논의를 한국어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특히 조사의 논의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어의 조사는 격이라는 범주와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기에는 인구어의 격 실현 양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의 생략은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격 표지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데서 의견이 갈라진다. 격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면 이 사실이 조사의 출현이 수의적이라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격과 조사를 대응시키는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워진다.⁷⁾ 고석주(2001)에서 조사

5) 전통문법과 구조문법에서의 목적격에 대한 논의는 류구상(2001) 참조. 생성문법에서의 목적격에 대한 논의는 김양진(2001) 참조.

6) 고석주(2001)의 2장에서는 격이라는 범주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7) 물론 ‘을’의 출현이 완전히 수의적인 것은 아니다. 화용론적인 변수 외에 문법적인 변수도 관련되는데 스가이(2004)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는 ‘을’이 관형절과 명사절에서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와 ‘을’을 양태조사로 파악한 것은 바로 격 실현의 필수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고석주(2001)에는 이외에도 격과 조사를 대응시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볼 수 있는데 그 논의에 따르면 조사 ‘을’은 격 표지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격을 국어의 기술에 적용하는 것조차 국어의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⁸⁾ 본고는 격과 조사를 관련시키는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고석주(2001)에 동의한다.

목적격을 설정하는 경우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결국 격 배당이나 격 확인의 절차가 단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격 배당 원리를 설정한다면 ‘을’이 나타나는 다양한 구성을 모두 기술할 수도 있다.⁹⁾

(1) 목적격 배당 원리

어떤 명사구나 명사구 상당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적격을 배당한다.

가. 해당 명사구가 타동성을 지닌 동사의 자매항이거나

나. 해당 명사구가 타동성을 지닌 동사의 자매항에 대해 분리 불가능한 전체이거나

다. 해당 명사구가 타동성을 지닌 동사의 시간 관련 부가어이거나

라. 해당 성분이 부정 용언 ‘않다’의 자매항이거나

.....

8) ‘을’을 격과 관련시키는 입장에 대한 고석주(2001)의 반박에 대해 임동훈(2002:165)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을’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다수의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격’이라는 장치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동사가 목적격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휘부 정보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9) 이러한 목적격 배당 원리를 제시한 논의를 보지는 못했다. 단일한 원리를 제시한 논의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의수(1999)에서는 두 가지의 이접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자립격으로서의 목적격 배당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논의에서는 부사어에 ‘을’이 나타나는 경우나 ‘을’ 중출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들 구성도 대격 구성으로 본다면 몇 가지의 조건을 더 부가하여야 할 것이다. 김의수(2003)에서는 격 허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성의 ‘을’을 ‘격’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기술하고자 하며 이종근(2000) 역시 목적격 배당이 복수의 통사 의미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격’이라는 하나의 추상적 범주 속에 다양한 현상을 기술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다양한 용법이 왜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기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같이 단일한 목적격 배당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출현하는 구성을 목적격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구성에 ‘을’이 나타난다는 것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사전에서 ‘을’을 기술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¹⁰⁾

격과 관련해서 ‘을’을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을’이 다양한 구성에 나타나는 것을 나열한 데서 그친다면 굳이 격을 이용하여 기술하여 생기는 이론적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격을 설정한 경우에도 ‘을’이 다양한 구성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기술해야 한다면 여전히 ‘을’ 관련 구성은 기술의 영역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생략의 문제와 ‘을’ 출현 구성의 동질성을 격과 관련된 논의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조사와 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더 나아가 격을 국어의 통사 기술에서 배제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¹¹⁾

분포에 따라서 문법격과 의미격을 나누는 임동훈(2004)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을’은 상대적으로 문법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하면 ‘을’은 문법격 조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¹²⁾

임동훈(2004:123-124)에 따르면 문법격 조사는 의미격 조사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명사 병렬 구조에서 문법격 조사는 전체 구성에 한 번 나타나나, 의미격 조사는 병렬된 명사 각각에 나타날 수도 있고 병렬 구조 전체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격조사로서의 용법 8가지와 보조조사로서의 용법 한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희자·이종희(1998)에서는 ‘을’을 ‘목적격 조사, 목적(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 외의 쓰임, 화용의 양상에서 살펴 본 용법’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을 다시 10개, 15개, 3개의 용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1) 내포절에서 ‘-었-’이나 ‘-시-’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을 통해 문법표지의 생략이 국어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을’ 생략을 격 표지의 생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어말어미의 생략과 조사 ‘을’의 생략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철수가 집에 가다’나 ‘선생님이 학교에 간다’와 같은 문장에서 우리는 ‘-었-’이나 ‘-시-’가 생략되었다고 기술하지는 않는다. 선어말어미의 생략은 후행하는 주절의 선어말어미와의 관련에서만 생략되는 것이다.

12) ‘구조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문법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을’의 분포가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에 나타날 수도 있다.¹³⁾ 둘째, 문장을 명사구로 변환할 때 문법격 조사인 ‘이/가, 을/를’은 생략이 되나 의미격 조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특수조사와 결합할 때 의미격은 유지되나 문법격은 유지되지 못한다.¹⁴⁾ 셋째, 문법격과 문법격은 중첩될 수 없으나 문법격과 의미격, 의미격과 의미격은 중첩될 수 있다.¹⁵⁾ 넷째, 문법격 조사는 그 선행어의 의미역이 매우 다양하나, 의미격 조사는 그 선행어의 의미역이 대체로 제한된다. 다만 ‘을/를’은 ‘이/가, 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역의 선택 폭이 좁은 편이다.

이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현상은 임동훈(2004)에서 첨사라고 분류된 특수조사의 일부의 분포적 특성과 문법격 조사의 분포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법격 조사의 독자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석주(2001)과 같은 논의에서 ‘이/가’, ‘을/를’을 양태조사로 보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상은 임동훈(2004:124)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을’의 경우에 의미역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의미격 조사와 ‘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2.2. 의미역

‘을’ 출현 명사구들과 후행 동사들 사이의 관계에는 일정한 의미론적 공통성이 있다.¹⁶⁾ 이러한 공통성에 기반하여 ‘을’의 의미나 기능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을’의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타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의미역에서는 대상역 또는 피동작주역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또는 피영향성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13) 첨사 역시 접속 구성의 내부에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문법격 조사가 첨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4) 이러한 현상은 문법격 조사가 특수조사(첨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문법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가 결합하기 어려운 것은 첨사와 첨사의 결합이 어려운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격과 관련된 논의의 경우에도 격 배당을 일정한 의미론적 속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김영주(1990), 홍기선(1993) 등에서는 행위성, 결정자 등과 같은 의미론적 공통성을 통해 목적격 배당 원리를 기술하였다.

피영향성의 의미 특성에 대한 기술은 임홍빈(1980)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미 관련을 격과 관련해 기술하여 ‘대격성’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형상적 구조에 의한 대격과는 다르므로 ‘을’에 대한 의미론적인 기술로 볼 수 있다.

임홍빈(1980)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역시 피영향성이다. 주어의 의도적인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변화를 겪는 대상이야말로 피영향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다. 타동문에 적용하는 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⁷⁾ 물론 타동성이 정도의 문제라고 해서 이것이 언어로 나타날 때도 정도의 문제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문법 범주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대개 유무 대립의 가능성을 가진다. 즉 조사의 경우에도 ‘을’이 연결될 수 있는가, 연결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점으로 인해 임홍빈(1980)에서는 타동성, 피영향성에 화자의 시점을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즉 피영향성을 인식하는 화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아래 예문을 보다 원초적인 타동 구문과 그것의 확대로 이해하는 것이다.¹⁸⁾

(2) 가. 철수가 영희의 뺨을 쳤다.

나. 철수가 회초리로 영희의 종아리를 쳤다.

다. 순희는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다

라. 순희는 손짓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다.

17) 손인호(1994), 우형식(1996), 연재훈(1997) 등은 이러한 타동성의 개념을 통해 국어의 목적어 문제를 다루고 있다.

18) 유현경·이선희(1996)은 ‘원형 의미역’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어의 조사 대응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선희(1999)에서는 ‘원형 대상역’이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를’의 문법적 실현과 관계됨을 보이고자 하였다(고석주 2001:71-2).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으로 인정된 예들에서는 주어가 ‘원형/전형 행동주역’을 가지며 목적어가 ‘원형/전형 대상역’을 가지는 것으로 쉽게 분석된다. 그러나, 유현경·이선희(1996)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 등의 구문에서는 ‘주어’ 논항이 ‘원형 행동주역’을 갖지 못하고 ‘원형 대상역’을 가지는데, 조사 ‘-가’가 쓰인다. 이것은 조사 ‘-가’와 ‘-를’이 원형 의미역과 무관하게 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고석주 2001:72).

위 문장 가운데에는 실제로 어떤 대상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문장에서 ‘을’ 출현 명사구에 다른 조사 ‘에’나 ‘으로’, 또는 ‘이’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형적인 ‘을’ 출현 명사구처럼 ‘을’이 나타나지 않는 구성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문장을 피영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¹⁹⁾ 모든 문장에서 ‘을’ 출현 명사구가 동일한 의미 특성을 가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피영향성의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피영향성을 인식하는 것이 특정한 사태를 물리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특정한 문장이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언어를 벗어나서 언어를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형태 통사적 근거를 순환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언어 기술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의미역을 담당하는 요소로 ‘을’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역을 담당하는 요소로 이해되는 다른 조사들이 갖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미역을 담당하지 않는 문제이다. ‘에’의 경우에는 ‘처소’의 미역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으로’ 역시 ‘방향’ 의미역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른 한국어의 조사가 특정한 의미역만을 가리키는 요소라는 기술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격과 관련해서 ‘을’의 기능을 기술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할 때도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조사가 나타나는 구성에서 논항, 또는 부가어와 서술어 사이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열하고 이를 하나의 의미역이라고 명명한다면 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조사를 설정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조사의 기능을 단일하게 기술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명명에 의한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의미역이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하나의 조사가 가리키므로 이에 기대어 그들을 하나의 의미역으로 포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9) 홍재성(1987:20)에서는 목적어 성분을 ‘을’이 뒤따르고 의문사 무엇, 어디, 누구에 대응되는 속성을 가진 성분으로 규정하였다.

2.3. 화용격 또는 보조사

‘을’ 출현 성분이 논항이 아닐 경우를 기술하는 것은 격이나 의미역을 통한 기술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을’을 화용론적인 존재로 기술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을’이 양태적인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홍빈(1972), 이광호(1988), 이남순(1988)처럼 주제조사로 볼 수도 있고 선우용(1994)처럼 동태적 세계 인식을 표현하는 특수조사로 볼 수 있다. 한정환(2001)처럼 화용격 표지라고 할 수도 있으며 양정석(2002)처럼 피작용성을 부여하는 특수조사로 볼 수도 있다. 고석주(2001)에서는 대상, 도달점을 선택 지정하는 양태조사로 기술하였다.²⁰⁾

이러한 기술은 결국 격이나 의미역으로 포착되지 않는 ‘을’ 출현 구성을 기술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²¹⁾ 최소한 그런 구성은 문장 내부 요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담화 상황이나 화자의 세계 인식이 관련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양상을 의미론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술하는가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의미론적 관련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는 한정환(1999, 2001), 시정곤(2001)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론적인 관련은 화용격 ‘을’과는 동음이의 관계에 놓이는 또 다른 ‘을’이 담당한다고 기술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어 자리에 화용격 ‘을’이 놓일 수 없다는 점은 결국 화용격 ‘을’이 최소한의 의미론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의미론적인 관련을 ‘피영향성’, ‘동태성’, ‘대상’, ‘도달점’ 등의 표현을 통해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을’을 특수조사 또는 보조사로 본다 하더라도 ‘을’이 계열 관계를 형성하는 ‘는, 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²²⁾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무시될 만한 것인가

20) 이 밖에도 ‘을’이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논의는 유동석(1984), 남기심(1991) 등이 있다.

21)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도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의미 관계를 기술에 끌어들인다. 피영향성, 대상, 도달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미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들도 이해된다.

22) 목정수(1998-1, 2)에 따르면 ‘을’은 ‘이, 는, 도’와 함께 한정사에 속하는데 ‘이’는 ‘주체 지향적’, ‘화자 지향적’, ‘여기-지금 지향적’, ‘유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로서 그

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논항과 서술어의 의미론적 관련을 표현하는 요소가 과연 양태 요소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특정한 위치라고 하는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을’의 의미로서 의미론적 관계가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의미는 양태적인 것이나 다만 출현하는 위치에서 특이한 제약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이성을 특정한 용어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3. ‘을’의 의미

3.1. 기술의 방향

‘을’과 관련된 논의는 일종의 스펙트럼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을’의 기능에 대한 기술

구조격표지－문법격조사－의미역표지－양태조사－화용격표지

통사적인 분포나 구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을’은 구조격 표지로 간주된다. 통사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을’은 문법격 조사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논항과 술어의 의미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을’은 피동작주 역표지로 간주될 수 있다. 논항에 나타나지 않는 ‘을’에 대한 기술을 포괄하려는 입장에서는 ‘양태조사’나 ‘화용격 표지’로 간주하게 된다. 이처럼 ‘을’은 타동문의 목적어와 관련되는 분포적 측면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론적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기술이 나뉘게 된다.

이들 논의 모두가 ‘을’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구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논항이 아닌 구성에 나타나는 ‘을’에 대해서

잠재의미가 파악되고, ‘을’은 ‘객체 지향적’, ‘청자 지향적’, ‘과거·미래/저기 지향적’, ‘무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로서 잠재의미가 파악된다고 한다.

는 기술에 중요하게 포함시키지는 않는 데 반해²³⁾ 의미의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에서는 논항 이외의 위치에 나타나는 ‘을’뿐만 아니라 논항 위치에 나타나는 ‘을’까지도 한꺼번에 기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석주(2001)에서는 대상, 도달점을 선택 지정하는 양태조사로 기술하였다. 이때 대상, 도달점이라고 하는 것은 논항과 술어의 의미론적 관계로 생각되며 선택,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로 생각된다.

조사나 어미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특정한 범주나 용어로 포괄하기에는 이들 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을’의 다양한 용법을 기술하는 사전에서의 처리를 뛰어넘어 단일한 원리나 개념으로 ‘을’ 출현 성분들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동시에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을’ 출현 성분들의 공통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점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용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하나의 원리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본고는 출발한다. 본고의 논의는 나열주의식의 사전적 기술과 하나의 원리를 설정하려는 이론적 기술 사이에 놓인다. 기존의 논의가 늘 하나의 원리에만 목표를 둔 것은 물론 아니다.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논의는 다양한 용법을 최소한의 차이로 환원하려는 태도로 간주된다. 본고 역시 공통점을 포착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환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격과 조사 ‘을’을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석주(2001)과 비슷한 입장에서 격과 조사 ‘을’을 분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것은 ‘을’이 없어도 문제의 대격, 목적격이 배당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격이 실재하고 그것의 표현이 ‘을’이라면 ‘을’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는 격이 없어야 하거나 최소한 대격이나 목적격은 아니

23) 물론 논항 이외의 구성에 나타나는 ‘을’을 기술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김의수(2003)에서는 일정한 구조가 주어지고 특정한 성격의 술어가 주어지면 ‘자립격’인 대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피동작주가 아닌 명사구에 나타나는 ‘을’을 설명하고자 한다.

어야 한다. ‘을’이 없는 문장에 대해 편의적으로 ‘을’과 관련시켜 대격이나 목적격을 논의하는 것은 생략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엄밀한 기술을 요구한다.²⁴⁾

비슷한 입장에서 이른바 의미역을 ‘을’과 직접 관련시키는 것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역시 생략이라고 하는 매우 비제약적인 절차에 의한 것 외에는 타당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을’이 없는 문장에서 대상역이나 피행위자역이 파악된다면 이것은 ‘을’의 기능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격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생략이라는 매우 비제약적인 현상에 대한 엄밀한 기술이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있는 문장과 ‘을’이 없는 문장을 관련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을’이 대상역의 의미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을’이 의미역 표지라고 하는 점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을’이 출현하지 않은 문장에서 대상역의 의미역이 파악된다면 ‘을’을 의미역 표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의미역 표지가 없이도 의미역이 표시된다면 ‘을’은 온전한 의미의 표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홍중선·고광주(1999)에서처럼 의미역을 세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역에 ‘을’이 대응하게 된다.²⁵⁾ 이런 점도 ‘을’을 바로 의미역 표지로 간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본고는 ‘을’의 의미를 하나의 의미로 환원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것은 선험적인 전제는 아니다. 다만 추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이 의미가 모든 용법을 포괄한다는 기술은 자칫하면 공허한 논의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추상적인 ‘을’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문장에서 느끼는 의미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추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용법을 무한한 수의 의미로 기술할 수는 없다. 그러한 용법을 포괄하여 하나의 의미에 이른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24) 특히 보조사적인 용법의 ‘을’은 생략이라고 하기 어렵다. ‘영희가 착하지 않다’는 ‘영희가 착하지를 않다’에서 ‘를’이 생략된 문장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영희가 집에 간다’는 ‘영희가 집을 간다’에서 ‘를’이 생략된 문장이라고 하기 어렵다.

25) 홍중선·고광주(1999)에 따르면 ‘을’ 논향이 [원천역], [경로역], [도달역], [목적역], [영역역], [장소역], [결과역], [피해자역], [피위자역], [공동역], [대상역], [동작역], [수혜역] 등의 의미역과 관련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다른 조사와 교체를 할 수 있는 구성들이므로 이들을 ‘을’의 의미를 통해 기술하지 않으면 ‘을’이 위 의미역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수 있다.²⁶⁾ 그러나 그것이 선험적 전제가 되어 연역적으로 모든 문장을 기술한다면 추론 과정의 엄밀함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입장은 최소한의 용법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 용법의 차이를 ‘을’의 의미 기술에 반영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을’의 유무를 통해 ‘을’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 는’과 같은 조사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당연한 듯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다른 조사와 ‘을’이 교체하는 듯한 구문을 설명할 때는 ‘는’이나 ‘도’가 나타나는 문장과 비교하는 작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4) 가. 영희가 학교에 간다.

나. 영희가 학교를 간다.

(4가, 나)는 ‘을’과 ‘에’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4가) 문장은 정적인 것으로 (4나) 문장은 동적인 것으로 기술한다면 ‘는’이나 ‘도’가 나타난 문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기술되어야 한다.²⁷⁾

(5) 가. 영희가 학교도 간다.

나. 영희가 학교는 간다.

(5가, 나) 문장은 정적인가 동적인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을’이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5가, 나) 문장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 (5가, 나) 문장에서도 대상의 의미가 표현된다면 이는 양정석(2002)의 기술처럼 화자에 의해 피영향성이 부여되는 것이거나 고광주(2001)의 주장처럼 이미 ‘가다’라는 동

26) ‘을’의 의미를 하나의 의미로 기술하는 것은 생성적 입장이 아니라 해석적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동작성’ 또는 ‘객체 지향적’ 의미와 같은 의미 기술은 다양한 구성에 나타나는 ‘을’의 의미를 하나로 해석해 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27) (5) 문장은 ‘을’이 보조사 ‘는, 도’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을’의 의미나 기능으로 결합의 제약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한다.

사는 처소와 대상의 두 가지 의미역 논항 구조를 갖는 것으로 어휘부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의 의미 특성이 ‘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다’는 이미 어휘부에 대상역의 논항을 요구하는 논항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2. ‘을’의 의미

본고에서는 ‘을’이 전형적으로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를 표현한다고 본다. 이 의미는 ‘동작’과 ‘대상’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형적인 상황은 ‘동작’이 있고 이 동작은 특정한 개체를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관계는 명제 그 자체의 분석에 의해 주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타동 구성은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을’은 이러한 전형적인 관계 의미만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에서 대상이 동작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닌 성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동작을 상징할 수 없는 문장, 즉 대상만이 부각되거나 나타나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가 확대되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상’의 외연이 확대된 용법을 보기로 하자. ‘에’와 ‘을’이 교체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이는 문장을 들 수 있다. 이동동사 일부와 명사구 일부가 참여하는 문장의 경우에 ‘에’와 ‘을’이 교체를 보인다.²⁸⁾

(6) 가. 철수는 학교에 갔다.

나. 철수는 학교를 갔다.

이러한 교체를 이른바 화용격 표지 ‘을’이 나타난 것으로 기술할 수 있을

28) 모든 이동 동사가 이러한 교체를 보이지 않으며 교체를 보이는 이동 동사의 논항 모두가 이러한 교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고광주 2001). 김미령(2004)에 따르면 ‘-에/를’ 교체가 가능한 동사는 크게 이동동사, 태도동사, 결과-상황동사 세 부류로 나뉘는데 격교체의 가능성 여부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동사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용법과도 관련된다.

것이다. 아니면 이중의 통사구조를 갖춘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의미역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대상역’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듯하다. ‘을’이 나타나는 경우에 무조건 ‘대상역’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을’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나 보조사가 나타난 구성에 대해서 대상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관적인 듯하다.

위 문장에 대해 동사가 각각 별개의 의미역 틀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들도 있다(양정석 1995, 고광주 2001). 그러므로 이러한 구성에 대한 의견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의미역과 통사 구조가 같다는 것이고 둘째는 통사 구조는 같아도 의미역은 다르다는 것이고 셋째는 의미역과 통사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고는 의미역의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택하고자 한다. 그것은 의미 확장의 동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특정한 의미역이 논항구조로 정착하는 경우에 그것은 별개의 구조로 어휘부에 기재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다’가 ‘학교를 가다’로 교체될 수 있을 때 화자가 그것을 별개의 의미역으로 파악하고 어휘부에 별개의 의미역 구조와 통사 구조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광주(2001)의 주장대로 격교체가 아닌 두 개의 논항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²⁹⁾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차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³⁰⁾ 고광주(2001)에서는 해당 구성을 허용하는 동사가 일부일 뿐이며 허용하는 동사에서조차 논항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격교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거는 되지만 격교체로 설명하지 않고 의미역 표지나 조사의 의미에 따른 결합으로 파악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조사의 의미기능의 확대가 반드시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설명해

29) 두 문장의 서술어의 어휘 내향 정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데 대한 통시적인 기술 또는 기원적인 설명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0) 김경학(1996), 송석만(2003)에서는 해당 성분이 목적격으로 나타나는가 전치사구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낼 수 없다면 최소한의 기술적인 충족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위 예문의 동사가 별개의 논항구조를 갖는 것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¹⁾

이른바 ‘을’ 성분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구성에서도 전형적인 대상의 관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을’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대상역의 문제는 ‘을’이 모두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³²⁾

(7) 철수가 영화를 팔을 잡았다

위 문장에서 ‘영화를’이 가능한 것은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구성이 ‘영화를 팔’이 구성을 이루는지 하는 것이 될 것이다.³³⁾ ‘영화의 팔’에서 ‘영화를 팔’이 되었다는 기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의 팔’과 동일한 구성은 아니더라도 ‘영화를’이 ‘팔’의 부가된 성분으로 기술될 여지가 있다(임흥빈 1996).³⁴⁾ 본고는 ‘영화를 팔’이 하나의 성분으로 분석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31) 보조사가 나타난 문장을 고려하면 이들 문장의 논항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는 ‘을’의 의미 기술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을’이 없는 문장이 최소나 도달점의 의미만 나타낸다면 이들 문장에 ‘을’이 출현할 경우에는 ‘을’이 피영향성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이 논항구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다른 타동 구성처럼 ‘을’이 그 의미를 가지고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2) ‘철수가 영화도 팔을 잡았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이때도 여전히 대상의 의미가 표현된다.

33) 유형선(2001:128-9)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문장은 일종의 발화 수정이라고 파악한다. 화자가 선행 명사구를 목적으로 선택하여 발화하다가 발화를 중단하고 후행 목적으로 수정하여 발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수는 음악을 대중음악은 물론이고 클래식까지 좋아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과연 화자가 발화 수정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4) 임흥빈(1996)에서는 성분 주제라고 기술하였으나 논항이 아니므로 일종의 부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5) ‘철수가 영화를 재빨리 팔을 잡았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출의 과정을 상정하고 표면에서 ‘재빨리’가 선적인 이동을 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는 이러한 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

(8) 철수가 밥을 세 그릇을 먹었다

위 문장에서 ‘을’ 역시 의미론적으로는 충분히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파악된다. ‘밥’은 대상의 의미를 확실히 가지지만 ‘세 그릇’은 전형적인 대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동작의 대상을 동작의 대상을 담는 용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³⁶⁾ 이 구성은 ‘을’의 의미의 일부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때만 합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부사적인 성분에 나타나는 ‘을’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모두 대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 대상의 의미는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행위가 대상 전체와 관련된다는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

(9) 철수는 세 시간을 잤다.

이러한 문장에서 ‘세 시간을’은 자는 행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자는 행위가 걸쳐 있는 시간으로 일종의 전체성의 의미를 보인다(유동석1988).³⁷⁾

이러한 의미는 논항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을’의 다의적인 용법인 것이다. 다만 대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작이 대상의 전체적인 국면과 관련을 맺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체성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위의 구성은 대상 관계가 가지는 전체성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성인 것이다.

동작과 대상의 관계에서 대상의 강조와 동작의 약화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다.

36) 대격 배당이라고 하는 추상적 절차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대격의 중출은 설명해야 하는데 김의수(1999)에서는 대격을 ‘자립격’으로 처리하여 이를 설명한다. 그런데 자립격의 중출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격표지로 나타난 성분들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처리는 ‘을’ 성분이 둘 이상인 경우를 기술적으로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7) 이러한 전체성은 임홍빈(1980), 우형식(1996) 등에서 대격 또는 ‘을’의 의미 특성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성은 특히 처소 명사구에 ‘에’ 대신 ‘을’이 사용될 경우에 두드러진다.

(10) 가. 영희가 예쁘지를 않다.

나. 영희가 생김새가 예쁘지를 않다.

한정환(1999, 2001)에서는 (10가)에 대해서는 영희가 예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을’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10나)는 그러한 동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오직 영희의 속성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을’이 가지는 대상 관계의 의미를 위 문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의 ‘을’의 용법은 전형적인 ‘을’의 용법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을’은 개체와 개체에 가해지는 동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를 확장하여 이해한다고 해도 위 구성의 의미 특성을 어떤 동작과 그 동작의 대상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영희가 어떤 동작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10) 문장은 영희의 상태나 속성에 대해 부정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은 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정의 결과를 부정 서술어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부정 서술어는 특정한 동작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부정하는 행위와 부정되는 대상의 관계는 문장 내적인 관계가 아니다. 화자와 명제의 관계에서 명제에 대한 부정을 대상의 관계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정의 서술어가 동작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에는 ‘이’가 제약되고 ‘을’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이 구성이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1) 가. 영희가 모질지를 말았으면 한다.

나. *영희가 모질지가 말았으면 한다.

부정 서술어가 ‘말다’로 교체되면 ‘을’만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문장 다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가’가 나타난 (11나)문장이 더 어색하다. 이것은 형용사 부정문에 나타나는 ‘을’ 역시 동작과 대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동작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에 의해 전적

으로 표현되지 않고 화자의 부정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부정 서술어는 선행하는 절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취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이 추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문장도 가능하다.

(12) 그때 영화를 만나지 말 것을 괜히 만났어.

위 문장에서 ‘을’이 결합한 구성에 대해 후행하는 서술어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서술어는 화자에 의해 담화상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서술어를 상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어말어미로 굳어진 구성의 일 부라고 할 수도 있다. 공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성은 ‘을’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에서 문장에 ‘대상’만이 나타나고 동작은 추상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이미 ‘을’이 명제 내부의 관계를 떠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초의미로부터 대상의 확장에 의한 의미와 동작의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파생될 수 있다.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화자이다. ‘을’은 화자가 동작의 대상이라는 관계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3.3. 조사 ‘을’의 의미와 분포

어떤 식으로 의미를 기술하든 그 결과는 조사 ‘을’의 범주 논의와 관련이 된다. 결국 ‘을’의 분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를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들 사이의 결합 제약은 설명해야 하므로 ‘을’의 범주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대상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른바 의미역 조사나 의미격 조사와의 결합 제약은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다. 물론 해당 구성에 대상의 의미를 상정할 수 있다면 중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사 또는 첨사라고 하는 ‘는, 도’ 따위와의 결합 제약은 단순히 대상 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³⁸⁾

고석주(1999)이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을’에 부여한 것은 이러한 결합 제약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화상(2003)은 작용역의 차이로 설명을 했는데 문장을 작용역으로 하는 보조사와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하는 구조격조사의 작용역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고석주(1999)의 기술과는 정반대의 기술이다. 고석주(1999)는 ‘을’이나 ‘이’가 보조사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황화상(2003:138)에서 “작용역이 같고, 서로 문법적 기능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두 조사는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제시한 조사 중첩의 조건을 연상하게 한다.

동일한 중첩 제약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의 입장은 ‘을’이 구조격 조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해결책은 ‘을’이 문장을 작용역으로 하는 보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고석주(1999)의 입장과도 유사한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을’이 보조사와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은 화자 의존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의미격 조사는 명제에서 논항과 술어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 그 자체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나 ‘을’은 그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포함한다. 명제 내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포함되므로 명제 내부의 의미론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구성에도 ‘을’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황화상(2003)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조사의 중첩 제약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조사들은 중첩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을’은 화자의존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보조사와 공통적인 기능을 공유하며 이 때문에 보조사와 같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⁹⁾

38) 조사는 일반적으로 격조사와 특수조사(보조사)로 나누는데 임동훈(2004)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문법격조사, 의미격조사, 후치사, 첨사로 나눈다. 이 분류에서는 ‘을’은 문법격조사 ‘는, 도’는 첨사에 포함된다.

39) 이는 적어도 ‘을’이 의미역 조사 또는 의미격 조사와는 구별되는 범주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는, 도’와의 기능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므로 의미역 표지와 ‘을’, ‘이’를 관계의미 표지로 묶고 ‘을’은 화자 의존적인 관계의미 표지라고 하고 의미역 표지는 명제 의존적인 관계의미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사 ‘을’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했다. 이른바 목적격 조사 ‘을’은 격 표지도 아니며 의미역 표지도 아니다. 조사 ‘을’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조사로 이해된다. 조사 ‘을’은 동작주-동작-피동작주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대상 관계는 ‘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아니다. 특정한 용언은 이러한 관계가 어휘내향 정보로 주어진다. 어휘 내향 정보에 대상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용언이 이루는 문장에 ‘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문장에 대상 관계 의미를 부가한다. ‘을’이 없다면 그러한 의미는 없다.

‘을’의 대상 관계는 전형적으로는 동작주와 피동작주 사이의 관계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순수하게 의미론적인 관계로서뿐만 아니라 화자의 파악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작과 대상의 관계는 화자와 명제의 관계로 확대되기도 한다. ‘을’이 일부 내포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을’이 화자의 대상성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을’은 화자가 판단이나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 명제와 화자의 대상 관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강조나 초점 부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는 기본적인 동작주-동작-피동작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작과 대상의 의미가 다의 형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의미는 ‘을’이 일부 부사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체성’의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동작의 대상이 주로 개체의 전체적인 국면에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동작이 완결되었을 때 잘 나타나는 점에서 확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사어의 ‘을’은 동작이 진행되는 시간에 대해 전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자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형용사가 부정서술어인 경우에도 선행하는 내포절에 ‘을’이 나타나게 한다. 이때는 형용사 부정서술어가 대상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화자가 선행절을 부정의 대상으로서 파악하여 동작과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을’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후행 서술어를 상정할 수 없는 문장에도 ‘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용법은 동작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동작이 서술어로 나타나지 않는 ‘을’의 확장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광주(2001), “목적어 있는 피동문,”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 고광주(2003), “국어의 격교체 구문 연구,” 한국어학 18.
- 고석주(2001), “국어 격조사에 관한 연구-‘이/가’와 ‘을/를’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경학(1996), “목적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담화와 인지 2.
- 김기혁(2002), “국어 문법에서의 격과 의미역할,” 한국어학 17.
- 김동석·김용하(2003), “주격과 대격의 교체-한국어의 예외적 격 표시-,” 우리말글 26, 우리말글학회.
- 김미령(2004), “‘‘격교체 양상에 따른 동사 분류에 대한 연구-‘에/를’ 교체 동사의 특성과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5.
- 김양진(2001), “생성문법에서의 목적격 연구,”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33-76.
- 김영주(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Harvard 대 박사학위논문.
- 김의수(1999), “자립격(Default Case)으로서의 대격 가능성 시고,” 한국어학회 편,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 김의수(2004), “국어의 격과 의미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욱(2003), 한국어 문법형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남기심(1991), “국어의 격과 격조사에 대하여,” 겨레문화(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 서울: 대학사, 재수록).
- 류구상(2001), “전통·구조문법과 조사 {를},”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 류구상 외(2001),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 목정수(1998ㄱ),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서울: 월인, 재수록).
- 목정수(1998ㄴ),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의미적 논의의 재검토: 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언어정보 2집(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서울: 월인, 재수록).
- 목정수(2002), “한국어 타동사 구문 설정의 문제,” 제25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 박한기(2001), “격의 교체와 차별,” 언어 26-3.
- 서정수(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 선우용(1994), “국어 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24.
- 손인호(1994), “국어 조사 ‘을/를’의 연구,”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석만(2003), “영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의미적·화용적 분석,” 영미어문학연구 19-1.

- 스카이 요시노리(2004), “대격조사의 유무와 문장의 계층구조,” 국어학 43.
- 시정곤(2001), “{를}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 신현숙(1982), “목적격 표시 /-를-/의 의미 연구,” 언어 7-1.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서울: 박이정.
- 양정석(2002), 시상성과 논항 연결, 서울: 태학사.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유동석(1984), “양태조사의 통보 기능에 대한 연구: {이}. {을}. {은}을 중심으로,” 국어 연구 60.
- 유동석(1988), “시간어에 대한 양화론적 해석과 조사 {에} : ‘Φ,’” 주시경학보 1.
- 유현경·이선희(1996), “격조사 교체와 의미역,” 남기심 엮음, 국어문법의 탐구 III, 서울: 태학사.
- 유형선(2001), “이중 목적격에 관한 일고,”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 유혜원(2002), “국어의 격교체 구문의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이광호(1990), “목적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국어연구회편), 서울: 동아출판사.
- 이남순(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 표시 생략, 서울: 탑출판사.
-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82.
- 이선희(2000), “조사 {를}의 의미와 그 문법적 실현,”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표(2001), “목적어의 표시 문제,”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 이정식(1999), “구조격과 내재격에 대하여,” 한국어학회 편,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 이종근(2000), “술어의 통사의미 자질과 대격,” 언어학 8-3.
- 이희자·이종희(1998), 사전식 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16.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 임흥빈(1980),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국민대 한국학논총 2.
- 임흥빈(1987), 국어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임흥빈(1996), “양화표현과 성분주제,”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서울: 신구문화사.
- 임흥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 임흥빈(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1,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임흥빈 외(1999), 구문분석 방법론 및 표지의 권장 표준안 연구, 21세기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구축분과보고서.
- 한국어학회 편(1999),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 한정환(1999), “의미격과 화용격 어떻게 다른가?,” 한국어학회 편,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한정한(2001), “중간언어 기계번역 시스템을 위한 ‘-를’의 처리,”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홍기선(1993), “한국어 대격의 의미,” 한국언어학회 여름 연구회 발표 논문.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홍종선·고광주(1999), “‘-을’ 논항의 의미역 체계 연구,” 한글 243.

황화상(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국어학 42.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40-742

전화 번호: 02-710-9308 FAX: 02-710-7310

전자 우편: yhsek@sookmyung.ac.kr